



HEADLINE NEWS

**버스·지하철 30분 이상 연착시
무료승차권 제공 (보스턴)**

보스턴의 매사추세츠만(灣) 교통당국은 최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30분 이상 연착하는 경우 승객들에게 무료승차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통당국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교통당국의 고위관계자 사진과 연락처를 게시, 승객들이 난폭 운전 등의 불만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만을 접수받은 고위관계자는 10일 이내에 답변을 주도록 하고 있다.

교통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을 일부 완화하고, 승객들의 권리를 일부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통당국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어느 지하철역 또는 버스노선에서 불만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2. 23)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아시아 6개 도시 경쟁력 비교 보고서 발간(동경
- ② 「동경구상 2000」, '정책지표' 최초 도입 (동경)

도시환경

- ③ 집배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요원으로 활용 (일본 : 돗토리·신조우시)
- ④ 소비자50% 이상 "비싸도 청정에너지 쓰겠다" (영국 도시)

도시교통

- ⑤ '슬로프' 설치한 노인·장애자용 버스 도입 (일본 : 카고시마시)
- ⑥ 주차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범칙금 납부 (뉴욕
- ⑦ 市長이 앞장서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 (L.A.)

행·재정

- ⑧ 핸드폰·이메일로 재난발생 및 방재정보 제공 (일본 : 하기시)
- ⑨ '가족이 함께 하는 소방훈련 체험 박람회' 개최 (일본 : 쿠마모토시)
- ⑩ 정책결정과정에 대학생·근로자 참여 일본 하치오지시)
- ⑪ 인터넷을 통해 납세고지서 발부 (베를린)

사회복지

- ⑫ 노약자·장애자용 대중교통 안내서 발간 (파리)
- ⑬ 장애인 전용객실 갖춘 숙박업소 개장 (일본 : 시로이시시)
- ⑭ 장애 학생에 적합한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 (영국 도시)
- ⑮ 마을곳곳에 노인쉼터 건립 추진 (일본 : 다키자와와촌)

① ‘아시아 6개 도시 경쟁력 비교’ 보고서 발간 (동경)

東京都 政策報道室은 지난 1월 30일 서울, 東京, 상하이, 싱가포르, 타이베이, 홍콩 등 아시아 6개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상호 비교하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아시아의 도시들(競い合うアジアの都市)」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데이터로 본 주요 도시의 매력과 공항 및 정보통신 정책’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보고서는 東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보고서는 각종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 東京과 경쟁 관계인 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매력을 상호 비교하고, 21세기 국가·도시간 경쟁에 주요한 역할을 할 공항과 정보통신정책관련 기초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CHOUSA/2000/12/60AC8100.HTM)

② 「동경구상 2000」, ‘정책지표’ 최초 도입 (동경)

東京都는 올 2월에 발간한 「동경구상 2000」을 통해 계획의 목표수준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 ‘東京都 정책지표(Tokyo Checkup List)’를 공개했다. 東京都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이 ‘정책지표’는 목표와 실적을 알리는 역할 외에도 정책의 달성도를 검증·평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미국 州정부에서는 ‘Benchmarks’라고 부르고 있다. 都는 기본구상 수립 이전에 정책지표의 도입을 위해 복지, 안전, 환경, 산업, 정보화, 고용, 도시정비, 주택 분야 등에 대한 99가지 지표 시안을 마련, 이에 대한 都民 및 행정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都는 이를 토대로 최종 60개 지표를 확정, 「동경구상 2000」을 통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www.seisaku.metro.tokyo.jp/keikaku)

(www.metro.tokyo.jp/INET/CHOUSA/1999/08/6098N100.HTM)

3] 집배원을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요원으로 활용 (일본 : 돗토리·신조우시)

일본 돗토리(鳥取)현 돗토리(鳥取)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家電 리사이클법」이 시행되는 데 맞춰, 최근 우체국 직원이 가전제품 등 대형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를 목격하면 당국에 알려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돗토리 중앙우체국과 체결했다. 또한 아이치(愛知)현 신조우(新城)시도 지난 2월 20일 ‘新城郵便局’과 협정을 맺고 집배원들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일본은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의 폐기와 가스·석유 난로 등의 대형폐기물의 회수를 유료화하는 「家電 리사이클법」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향후 불법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2. 20, 2. 27)

4] 소비자 50% 이상 “비싸도 청정에너지 쓰겠다” (영국 도시)

영국 가정용 에너지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이 청정에너지에 할증금을 지불해서라도 사용할 용의가 있으며, 청정에너지 요금표가 늦어도 2005년까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민간단체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에너지가 환경 문제의 주요 관심분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행위도 이른바 ‘그린 옵션(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사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www.britain.or.kr/korean/young/index.htm)

5 '슬로프' 설치한 노인·장애자용 버스 도입 (일본 : 카고시마市)

일본 카고시마(鹿兒島)현 카고시마(鹿兒島)시는 노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자의 편의를 위해 슬로프를 설치한 '논스텝 버스(Nonstep Bus)'를 3월 2일부터 운행하고 있다. '심신장애자종합복지센터' 등 복지·문화 시설이 있는 5개 노선에 배치된 이 버스의 바닥은 일반버스에 비해 15cm 정도 낮고, 휠체어를 승강할 수 있는 슬로프(Slope)가 설치되어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자나 노인이 버스를 탈 경우 승무원이 슬로프를 내려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휠체어는 버스내 전용공간에 고정시켜 놓는다. 市 교통국은 77인승 대형버스 4대와 52인승 중형버스 8대 등 총 12대를 이번에 도입했으며, 내년에는 중형버스 12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 3. 2)

6 주차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범칙금 납부 (뉴욕)

뉴욕市 재무부내 주차위반운영과(Division of Parking Violations Operations ; PVO)는 주차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개설, 市 전역의 주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市의 주차 정책 및 법령, 주차가능지역 및 기타 주차장 관련정보뿐만 아니라, 주차위반 및 차 견인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을 내기 힘든 납부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납부기한은 30일로 제한했으며,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www.ci.nyc.ny.us/html/dof/html/pvomain.html)

7 市長이 앞장서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 (L.A.)

자전거타기 애호가인 로스앤젤레스市 라이어던 市長은 현재 정기적으로 ‘자전거로 L.A. 돌아보기(Ride L.A.)’ 행사를 열고 있다. 市長은 1995년부터 ‘50만 마일 자전거 타기’를 목표로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市 여러 지역을 돌아보고 있다. 이는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토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市는 홈페이지를 통해 출발지점과 코스를 소개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www.lacity.org/MAYOR/bikeb.html)

8 핸드폰·이메일로 재난발생 및 방재정보 제공 (일본 : 하기市)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하기(萩)시는 3월 1일부터 전자메일 및 ‘핸드폰 전자메일’을 통해 시민이나 市 방재관계자들에게 재난발생 및 방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방재의식 제고와 재해·화재 발생시 市 직원 및 소방대원의 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정보로는 호우·고조(高潮)·폭설·건조·저온관련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비롯, 지진 및 해일, 화재, 댐 방류 관련 정보, 중대 사고나 폭설에 의한 도로상황 정보 등이 있다. 특히,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난발생관련 전자메일은 소방대원 소집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사히신문, 3. 2)

9 ‘가족이 함께 하는 소방훈련 체험 박람회’ 개최 (일본 : 쿠마모토市)

일본 쿠마모토(熊本)현 쿠마모토(熊本)시 소방국은 3월 4일 봄철 화재예방 운동의 일환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소방 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소방차 및 고가 사다리 탑승, 인명 구출, 밧줄 타기 등 소방훈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市 소방국은 소방차에 탑승해 기념사진 촬영, 방재센터 견학, 소방음악대 콘서트, 애니메이션 상영 등의 이벤트도 개최했다. (마이니치신문, 3. 5)

④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학생·근로자 참여 (일본 : 하치오지市)

東京都 하치오지(八王子)시는 지난 2월 쓰레기 리사이클 및 공공시설의 운영 등을 비롯, 각종 정책사안을 심의하는 심의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하면서, 대학생과 근로자들도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했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는 심의회 회의과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이는 관내 대학 수가 21개에 달하는 만큼 ‘젊은 목소리’를 지방자치에 반영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심의위원 응모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市에 거주하거나 근무 또는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 담당 부·국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각 심의회마다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市는 ‘행재정개혁추진심의회’, ‘도시계획심의회’, ‘복지센터운영협의회’ 등 45개의 심의회 및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전문가나 관련단체의 대표자들이 심의회의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아사히신문, 2. 16)

④ 인터넷을 통해 납세고지서 발부 (베를린)

베를린 세무국은 처음으로 2000년 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시민들이 인터넷 상에서도 조회해볼 수 있도록 했다. 세무국은 인터넷상에서 ‘Elsterformula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시민들이 각자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및 내역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베를린 세무국은 8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연방재정부 소속인 연방세 관할부서와 베를린주 재정부 소속인 주민세 및 교통세 관할부서로 나뉜다.

(www.berlin.de/home/Land/SenFin/OFD/)

노약자·장애자용 대중교통 안내서 발간 (파리)

파리市에서는 프랑스 최초로 노약자나 장애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교통안내서가 발간되어 배포되고 있다. 파리 지역이 속해 있는 일 드 프랑스 지방과 파리와 주변지역을 담당하는 파리교통조합(STP)이 공동으로 만든 이 안내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노약자나 장애자용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 지하철, 경전철, 기차 등의 노선안내 및 요금체계와 함께 지하철과 기차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이동장치 위치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장애자용 장치를 설치한 택시업체의 전화번호와 장애자용 주차장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www.cr-ile-de-france.fr/mag/mag.asp)

장애자 전용객실 갖춘 숙박업소 개장 (일본 : 시로이시市)

일본 미야기(宮城)현 시로이시(白石)시의 '福岡藏本藥師堂'에 있는 숙박시설인 「簡易保險宿所」는 일본에서 다섯 번째로 장애자 전용객실을 최근 설치했다. 이 객실에는 장애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리프트로 이동해 욕조나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온천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현재 장기 투숙객용 객실이 20실(30명 수용), 단기 이용자 객실이 38실(149명 수용)이 있으며, 연간 이용자 수는 숙박객 약 4만명, 당일 이용객 약 5만4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 3. 3)

㉞ 장애 학생에 적합한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 (영국 도시)

영국정부는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향후 4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이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04년까지 장애 어린이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2억2천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2002년부터는 성인 및 청소년의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데 1억7,2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애인 권익보호 관련법안에 지역당국이 장애 학생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www.britain.co.kr/korean/young/200101/news.htm)

㉞ 마을 곳곳에 노인 쉼터 건립 추진 (일본 : 다키자안村)

일본 이와테(岩手)현 다키자와(瀧澤)촌에서는 지역내 노인들이 부담 없이 들러 교류할 수 있는 일종의 쉼터인 「생기 넘치는 살롱」이 최근 개장되었다. 이곳은 몸이 불편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마땅하게 갈 곳이 없어 집에 있는 노인들에게 교류의 장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건립되었다.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문을 여는 이곳은 주 1회 간호사가 방문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등 건강 상담도 실시하며, 향후 불면증 또는 치매방지 관련 전문가 초청강의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이곳은 마을이나 자치회로부터 기부금 또는 식료품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러한 형태의 쉼터를 8곳으로 늘릴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세대간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 3. 3)